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사실상 무산

자격요건 충족 못해…전남개발공사 “카지노 없는 리조트 개발”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제안서(RFP)를 정부에 제출한 AOL통상 컨소시엄이 해를 넘기고 도 약속한 시일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무산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에서 탈락할 경우 기존 투자예정업체들과 함께 카지노 없는 리조트 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안서를 제출한 인천, 경남 김해 등의 컨소시엄 역시 정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재공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AOL통상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27일 5000만 달러 선납, 외자 투자 2억 달러 대출 확약서 등을 컨소시엄 참여사인 이튼(Eotn)의 투자확약서(LOC), 싱가포르 SC은행 대출확약서로 대체해 경도 복합리조트 사업제

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문제부는 이미 공고를 통해 추가 서류 보완 불가 원칙을 밝힌데다 청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점서상 ‘청구 무효’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사 탈락 여부는 오는 2월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여수 경도의 경우 본심사도 받지 못할 처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AOA 컨소시엄 측이 현금 5000만 달러 선납, 총사업비 1조원 이상, 외국인 투자 5억 달러 이상, 국제신용등급 BBB 이상(그 이하일 경우 2억 달러 대출 확약서 제출) 등의 정부 요건을 늦어도 지난해 연말까지 보완해 정부의 ‘배려’를 기대하려 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11일 오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면서 여수 경도의 복

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컨소시엄과 여러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며 “다만 이미 제안서를 접수한 다른 지역 컨소시엄도 모든 조건을 완벽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 경도뿐 아니라 참가 컨소시엄 모두가 조건을 완벽하지 못했다면 재공모를 요청하고,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조건을 완비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면세점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대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심사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으며 오는 2월 말까지 심사를 마치고 2개 내외의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는 여수 경도와 인천, 경남 진해 등 모두 3곳 6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쌀값 하락 지속

변동직불금 부족 우려

지난해 폭락했던 쌀값이 새해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산~2014년산 정곡(20kg) 가격은 모두 4만원대를 유지했으나 2015년산은 지난해 가을 햅쌀이 출하되자마자 3만원대로 폭락했다.

쌀 양곡시장의 최근 10일간 도매가격(중품)은 충청미와 전라미는 각각 3만6000원, 3만5000원에 머물고 있고 경기미는 그나마 4만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쌀 평균 도매가격은 3만6200원으로 지난해 연초의 4만1400원보다 12.6%나 하락했다. 소매가격도 4만2946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5.9% 떨어졌다.

쌀값 하락은 2015년산 쌀 수확량이 예상 생산량보다 7만t 증가한 433만t에 달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4년 작황이 부진했던 전남과 경남의 2015년산 쌀 생산량이 각각 전년대비 7%, 3.5% 늘어나 증가 폭이 컸다.

중부지방 쌀 생산량은 전년대보다 줄었지만 전남은 2014년산 생산량 80만9000t에서 2015년산 생산량이 86만6000t으로 늘어 전국 생산량 증가를 이끌었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산지 쌀값도 떨어져 지난해 수확기(10~12월) 산지 평균 쌀값은 80kg 기준 15만215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수확기 평균 쌀값 16만7347원보다 9.1%(1만5188원)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도 전년대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마련한 변동직불금 예산 7200억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80kg 기준 18만8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순진 합참의장이 11일 경기도 오산에 있는 미 7공군사령부를 방문,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한·미 “강력한 공군력으로 신속 대비태세 유지”

北 “B-52 띄우며 전쟁 점령에 몰아간다” 비난

북한은 11일, 미국이 ‘B-52’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긴급 파견한 데 대해 “정세를 전쟁 점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정세론 해설 ‘핵에는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 방식이다’에서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 핵전력 폭격기 편대를 들이민다 어ден다 하며 정세를 전쟁 점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한미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전남 해미사일로 무장한 B-52를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켜 ‘무력시위’를 한 데 대한 북한 관영 매체의 첫 반응이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군사적 힘으로 우리를 어찌 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고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이라며 “미국은 언제나 패하고 수치만을 당했다. 이 전통은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지난 6일 단행한 ‘수소탄 실험’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며 핵실험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경기도 오산에 있는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를 방문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다”며 “적 도발시 우리가 강력한 공군력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4 국민건강통계로 본 성인 남녀의 하루

노인을 뺀 한국 성인 남녀는 하루 평균 1.7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밥, 잡곡밥보다 커피를 더 자주 먹는 것이다. 또, 한국인들은 하루 평균 7시간 반을 잤을 채로 보내고 7시간 가까이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 1.7잔 마시고

쌀밥 0.6회 먹고

7시간 앉아 있고

6.8시간 잠 잔다

‘가족들과 저녁식사’ 64.9%

◇주당 커피 섭취 빈도 11.99회 =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2014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19~64세 남녀 34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당 커피 섭취 빈도는 11.99회(남성 14.3회, 여성 9.6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7잔씩 마시는 셈이다. 커피의 주당 섭취 빈도는 쌀밥(6.52회), 잡곡밥(8.93회)보다도 많았다. 조사 항목 중 쌀밥, 잡곡밥, 비빔밥(0.61회), 김밥(0.47회), 카레라이스(0.21회) 등 밥류 섭취는 16.74회(1일 2.39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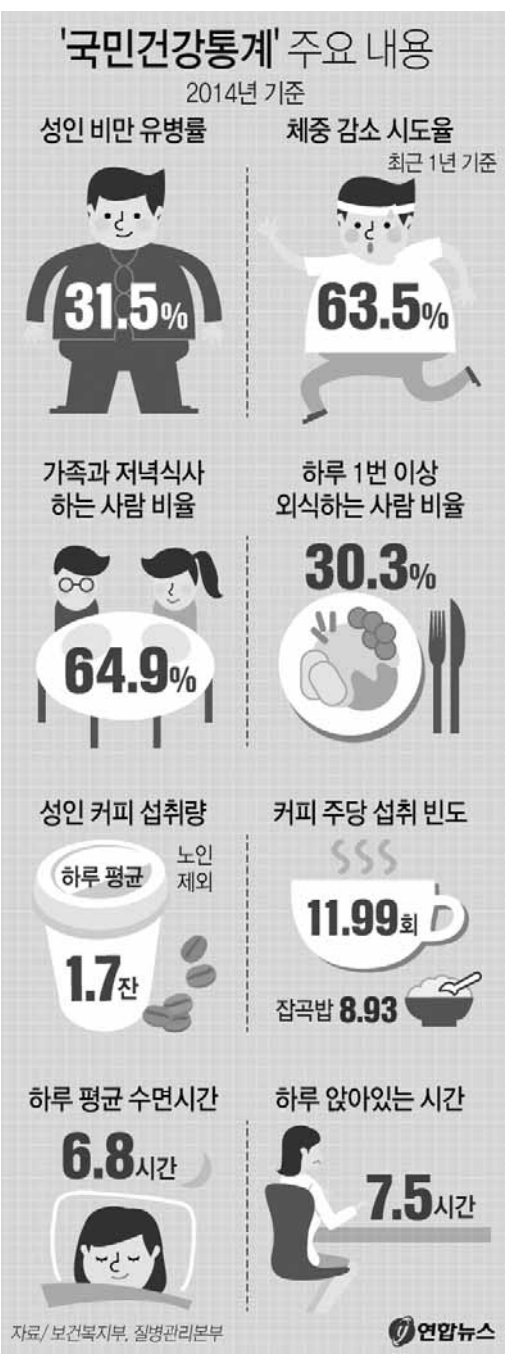
하루 커피를 마시는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이 24.43%로 가장 많았다. 하루 2회(22.97%), 하루 1회(18.66%)를 포함해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3명당 2명꼴(66.06%)이나 됐다.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12.0%였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김치와 달걀말이, 김, 멸치였다. 배추김치의 주당 섭취 횟수는 10.76회로, 기타 김치·겉절이(4.17회)를 포함한 김치류의 주당 섭취 횟수는 14.93회나 됐다. 다른 반찬 중에서는 김구이·생강·김무침이 2.20회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달걀말이·달걀후라이(1.80회), 멸치·멸치볶음(1.50회), 찜장·초고추장(1.48회), 찜채소·꽃고추(1.18회), 장아찌(1.16회), 된장찌개·정국장찌개(1.15회) 등도 ‘인기 반찬’이었다. 우유는 주당 2.34회, 라면·컵라면은 1.14회 섭취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1.64회), 귤(1.20회), 바나나(1.02회), 토마토·방울토마토(1.00회) 순으로 섭취빈도가 높았다.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 7.5시간 =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7.5시간(남성 7.7시간, 여성 7.4시간)으로 집계됐다. 19~29세가 8.7시간으로 제일 길었다. 30대 7.6시간, 40대 7.3시간, 50대 7.1시간, 60대 6.7시간 등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든다가 70대 이상에서는 7.5시간으로 다시 길어졌다. 앉아서 지내는 시간은 도시 거주자 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았다. 도시에 사는 동(洞) 거주자는 하루 7.7시간을 앉은 채로 보내 읍면 거주자의 6.8시간보다 길었다. 또 소득수준이 상(上)인 사람은 7.9시간, 중상(中上)인 사람은 7.6시간, 중하(中下)인 사람은 7.5시간, 하(下)인 사람은 7.1시간씩을 각각 앉아서 생활했다.

성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8시간이었다. 19~29세 7.1시간, 30대와 40대 6.8시간, 50대 6.7



시간, 60대 6.6시간, 70대 이상 6.4시간 등으로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성인 남성(조사 대상 1691명) 중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8%나 됐다. 응답률은 40대(20.6%)와 50대(15.3%)에서 높았으며, 19~29세는 8.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의 응답률(조사 대상 1천127명)은 5.5%로 남성보다 훨씬 낮았다. 남녀를 아우른 전체 응답률은 11.6%였다.

◇3명 중 1명은 저녁 가족과 안 먹어 =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64.9%에 그쳤다. 2005년 76.1%에서 2008년 68.6%, 2010년 67.7%, 2012년 65.7% 등 줄곧 낮아졌다.

아침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비율이 더 낮았다. 2014년 기준으로 아침 가족동반식사는 4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족 구성원이 학교나 직장에 있는 점심 동반식사는 16.5%로 가장 낮았다.

혼자 식사를 하는 이른바 ‘혼밥족’의 비율은 끼니별로 아침 29.0%, 점심 24.6%, 저녁 18.6% 등이었다. 대체로 여성이나 65세 이상 노인이 많았다.

하루 1번 이상 외식하는 사람의 비율은 2008년 23.7%에서 2014년 30.3%로 증가했다. 10명 중 3명은 하루 1번 이상 밖에서 밥을 먹는 것이다.

／연합뉴스

여수시 공고 제2016-70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10.

여 수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도로 및 기타 학교	272,642.9 98,754.6	중1, 772 중1, 772	274,414.9 97,982.6	21.8 7.9	중로3-가호선 신설 중로2-1호선 일부변경 학교 신설 일부폐지

2)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분	면 적(m ²)	면 적(m ²)	면 적(m ²)	면 적(m ²)	비 고			
기정	중로 2	1	15	일반도로	보조간선	1,502(942)	중2-5 분수동 275도	대1-16 분수동 718-1삼	원화차로
변경	중로 2	2	1	일반도로	보조간선	1,502(942)	중2-5 분수동 275도	대1-16 분수동 718-1삼	설치
신설	중로 3	3	12	일반도로	집진	130	중로2-1 분수동 640-2학	소로2-222 분수동 640-2학	

※ ()는 여수 분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내 연장임

■ 교통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	중로2-1	노선 변경 - L=1,502m(942m), B=15m, A=117m'	중로3-가호선의 원화차로 설치를 위한 도시 변경
-	중로3-가	노선 신설 - L=130m, B=12m, A=1,655m'	해지지구와 아라포길설계정지 등 주변 도시계획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원화도로를 위한 노선 신설

(2) 공간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3) 공공 · 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38	특수학교	분수동 640-2학	6,464.2	감11,772.0	4,692.2	일부폐지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학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8	여명학교	일부면적 폐지 • 위치: 분수동 640-2학 • 면적: 감11,772㎡	중로3-가호선 신설 및 중로2-1호선 일부변경에 따른 학교용지 일부면적 폐지

3) 지구단위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학교

연면 적	가구번호	면적(m ²)	회차수(필지)	비 고	
5	분수 640-2	6,464.2	4,692.2	1	중로3-가호선 신설 및 중로2-1호선 일부변경에 따른 일부면적 폐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 전배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4.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도면: 개제 생략

5. 열람장소: 여수시장 도시계획과

6. 공고기간: 2016. 1. 12. ~ 1. 26.(15일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도시계획과) ☎061-659-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치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2016년 부동산 전망 및 성공 투자 전략 무료 大 특강

99%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 제시!!

장 소	롯데백화점 11층 문화센터
일 시	2016. 1. 13(수)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교시 (1) 2016년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폭집게 투자 전략 대응법 공개 (2) 부동산 지역별/물건별 맞춤 투자 전략

2교시 (1) 광주·전남 개발계획에 따른 돈되는 부동산 매물 공개 및 정확한 수익성 분석 (2) 부동산 가격 상승 핵심지역 분석-임대수익과 시세 차익 동시 공략 비법

3교시 (1) 개발지 토지 투자(소액포함)로 영원히 월세받는 비법 대 공개-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네셔널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